

##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인과관계

정주신 한밭대학교

### 논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통일에 있어 동서 베를린 분단의 종료,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에 영향을 끼친 인과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될 핵심 요소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은 '동독과 서독의 분단→ 동베를린의 분단→ 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 붕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여하튼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동서독은 정상회담을 수차례 가져왔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전에는 날카로운 대립만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정상회담이 진척된 것만 보아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서독 통일에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서독 주민들, 특히 동독주민들의 통일 여망은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데 제일 큰 공헌을 한 셈이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분단 독일과 분할 베를린 영토에 펼쳐진 장막과 철조망을 뚫고 하나된 독일을 발원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즉 독일 통일은 독일이 민족적으로 밑으로부터의 통일 과정이 멩쳐서 정상적인 통일 독일과 독일인으로 합쳐짐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주제어** : 전승4국, 독일 분단, 베를린 분단, 베를린 장벽 붕괴, 독일 통일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10.18민주항쟁연구소가 2020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I. 서론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은 전승4국으로부터 1945년 8월부터 물리적인 동서독으로 분단된 이후, 1990년 10월 동서독 중심의 통일을 성취하기까지 45년간 분단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동독이 무너지면서 통일되었다. 돌이켜보면, 전승4국 중에서 당시 능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소련은 승전국끼리의 합의를 깨고 동독을 세웠다. 그러자 미국·영국·프랑스는 나머지 지역에 서독을 세웠다. 이에 대해 1948년 6월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동서 유럽에서의 냉전을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베를린은 본래 전부가 소련 점령 지역이었으나 독일의 전통적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미·영·불 3개국이 압력을 넣어서 동서베를린으로 분할된 결과 서독으로서는 월경지가 되었다. 독일을 미국·영국·프랑스 중심의 서독과 소련 중심의 동독으로의 분단과 동독내의 베를린을 과거 독일의 수도였다는 이유만으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의 분할은 전승4국의 편리에 따라 계획적이고 강압적으로 영토 분열을 획정한 것이었지, 독일 국민과 동서독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면서 서독의 법적 수도는 1949년 5월 23일 분단, 1990년 8월 31일 통일 관련 조약 체결,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명목상 수도는 베를린(Berlin)이었으나 실질적 수도는 사실상 본(Bonn)이었다. 통일 이후에는 본에 있던 연방 기관들이 대거 베를린으로 이전했지만, 베를린은 공식적으로 동서독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전승4국의 관할지역인데다 소련 관할지역인 동독에 둘러싸인 월경지였기에 실질적으로 수도(首都)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인 독일이 전승4국에 의해 점령 분단했듯이 동독 내에 속한 베를린 또한 독일 수도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전승4국에 의해 또다시 분할되었다는 것은 독일의 이중 분할

문제를 의미한다. 이 이중 분할의 독일문제는 독일 내부 문제보다는 독일 외부 문제에 의해 작용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독일 내부냐, 아니면 독일 외부냐를 중심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전승4국에 의한 위로부터의 분단 과정이 전범국 독일 영토와 그 수도 관할지 베를린을 분할시켰다. 이는 독일이 또다시 전범국이 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였지만, 독일 국민과 베를린 주민들의 이산과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반대로 독일 국민과 베를린 주민들은 전승4국, 특히 소련과 동독 체제에 맞서면서 분단 독일과 분할 베를린 영토에 펼쳐진 장막과 철조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독일 통일은 분단 동서독과 분할된 동서베를린을 단일 독일 원상태로 복구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영토마저 분할된 것은 독일 국민이나 동서독 주민들의 활동반경은 물론 교류에 치명타가 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 국민이나 동서독 주민들을 움직였다. 그러므로 분단 독일이 통일 독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독일 국민이나 동서독 주민들이 뭉치면 외세도 이들의 통일 환경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형국이었다. 외세가 만든 베를린 장벽을 뚫고 통일 독일을 염원하던 터에, 독일 통일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일사천리 진행되었다. 즉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독에서 1990년 3·18총선으로 의석수의 대부분이 서독정당에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소위 전승4국도 동서독과 더불어 2+4회담에 우호적으로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베를린 장벽 붕괴란 밑으로부터의 통일 과정이 정상적인 통일 독일과 독일인으로 합치는데 큰 작용을 가져왔다.

1961년 울브리히트(W. Ulbricht)의 기자회견 장면과 1989년 샤보브스키(G. Schabowski)의 기자회견 장면은 베를린 장벽의 시작과 종말을 각각 상징한다. 베를린 장벽의 구축, 이어진 구역별 국경 장벽의 구축, 마침내 베를린 장벽의 붕괴 장면은 오늘날까지 독일 통일의 상징성으로 전세계적으로 방송되고 또 재방송되고 있다.<sup>1)</sup>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9월 12일에 서베를린에 대한 연합국 점령이

해제되고, 독일 연방 공화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후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의 재통일이 실현되면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구분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首都)로 회복되었다.

따라서 승전4국이라는 외세나 그들의 국제적 환경이 독일과 베를린을 분단시킨 요체가 되었지만, 반대로 독일 통일 과정은 무엇보다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동서독 주민들에게 통일 열정을 불어넣어 주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독일이 분단되었으나 분단의 중심축은 독일 수도였던 베를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구나 베를린 분할의 향방은 독일 통일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일 분단과 동서독의 존재, 분단 베를린과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 통일로 급변하는 상황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베를린'에 집중된 동서독이나 승전4국이 독일 통일의 전초기지인 베를린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들었음을 고찰하는 것이다.

분단 베를린의 중요성은 베를린이 소련 관할 지역인 동독 내에 위치해 있었고, 그 베를린이 승전4국에 의해서 또다시 분할되었다는 데서 독일 통일의 중요한 배경요인에 있었다 할 것이다. 동서독 분단과 더불어 동서 베를린 분단은 독일이 이중 분단이라는 오명을 남겼지만, 결국 이중 분단이 통일로 가는 단초였다는 데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큰 틀로서 동서독 분단으로서의 동서독 통일보다는 작은 틀의 범주에서 동서 베를린 분단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겪고서 동서 베를린 통합과 통일 독일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데서 연구의 필요성을 지닌다. 동베를린의 경우 명목상 소련군 관할 지역이었기에 '주'가 아닌 '특수지역'으로 간주된 것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으로써 독일 통일의 명분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를린 분단 이후 베를린 장벽이 공고화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동독당국 대변인 샤보프스키의 말실수로 급격하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분단 베를린은 통일 베를린으로 가는 견인차가 되었고, 궁

1) <https://heritage.unesco.or.kr> (검색일: 2020/07/22).

극적으로는 통일 독일의 발원지로 탈바꿈 된 셈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동서독 통일이 거시적 차원의 관점에서 정상회담 등을 통한 동서독 분단을 해결하려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정주신 2020), 오히려 국소적 의미에서 동서 베를린 분단, 특히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간의 그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lity)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 통일로 이룬 완성체로 결과지어진 바, 그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독일 통일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독일 통일에 대한 개괄적인 저서 위주, 즉 분단과 통일의 현대사를 다룬 연구,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그리고 분단 극복의 경험 등을 다룬 것(손선홍 2005; 김국신 외 1994; 정용길 2009; 김영탁 1997; 백경남 1991; 서지원 역 2004)이다보니, 직접적으로 통일 독일을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연계한 연구가 부진해 온 한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독일통일은 국제적 환경요인과 정상회담의 대가(代價)였지만, 연구과정에서는 이를 독일통일 전개과정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정주신 2020). 그러나 이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점을 간과한 경향이였다.

그 다음 통일독일과정에서의 정당 혹은 정치 집단 및 단체 중심의 미시적 관점에서 논의, 이를테면 통일 독일과정에서 정치·사회단체들의 대응(서병철 편 2003), 독일통일의 당내 역학 관계 내지는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유진숙 2011), 개별 수상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유진숙 2008), 독일 및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연구(정병기 2011; 김면희 2010; 김종갑 2003) 그리고 독일통일에서의 특정 정당의 고찰 및 역할론(김경미 2002; 김도태 1996) 등의 연구는 정당 내의 역학관계를 둘러싼 파워게임이나 특정 정당의 사례, 그리고 동

독 내 정당체계 분석에 머물고 있어 통일독일을 이룬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변화된 국제적 환경요인과 2+4회담으로 작용한 것이어서 기존 연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방식 모델에 따라 한반도 통일 모델을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동서독 통일을 베를린 장벽의 붕괴의 일환으로 보거나, 아예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 통일을 가져다준 쾌거를 간과해 연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향후 DMZ 붕괴 등 당면한 남북한 통일과 관련한 후속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선행연구가 이처럼 동서독 통일이 국제적 환경요인의 변화나 동서독 정상회담의 결과였음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의 변화를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정치적 및 경제적 통합에 치우쳐 연구한 셈이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독일통일 사례를 모범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한 독일통일로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오지도 못했다. 이들 연구자들의 방식은 어쩌면 국제환경의 변화나 정상회담의 개최에 초점을 두었지 굳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조차도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가정 중요한 열쇠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음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 연구가 취약하다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통일연구의 새로운 척도를 DMZ에서 찾아야 하는 연구가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연구의 요체는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가고자 했던 열정이 묻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넘어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및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방문,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텔레비전·라디오·신문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하는 등 북한과의 협정을 체결해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이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독 정부는 평화 공존을 넘어 동독 주민들의 삶의 질, 인권개선에

초점을 뒀고, 이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동독이 서독과, 혹은 동독주민이 서독주민과의 통일을 향한 힘찬 행진을 보여준 것이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열정이 DMZ에서도 나타나야 함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두고, 북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 통일의 도화선(導火線)이 되었음을 인과관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전개과정을, “분단 ‘베를린’에 포커스를 두면서 동서독의 분단→ 동서베를린의 분단→ 베를린 장벽의 건설→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동서독 통일”의 순서로 살피고자 한다. 사회과학계에서 인과관계는 선행하는 한 변인(X)이 후행하는 다른 변인(Y)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믿는 관계이다.<sup>2)</sup> X가 Y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 즉 X가 있으면 Y도 있고, X가 없으면 Y도 없다는 의미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 통일의 바로미터였음을 증명해보고자 기존 독일 통일 관련 문헌 조사 및 인터넷 자료 조사 등을 활용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관련하여 독일의 성공적인 통일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에 기인한 동서독 주민이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동서독 통일이 동서독 정상간의 정상회담의 결과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국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독일 통일이 시작되었다. 요컨대 고르바초프(M. Gorbachev)의 개혁과 개방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였듯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 또한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2+4회담으로 결과지어 졌다. 그 인과관계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국제환경의 변화와 등치되면서 2+4 회담으로 통일이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결국 독일 통일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도, 어쩌면 연구 초점이 소련

2) [https://namu.wiki/w/상관관계와\\_인과관계](https://namu.wiki/w/상관관계와_인과관계) (검색일: 2020/01/23).

의 붕괴와 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독일주민, 특히 동독주민을 자극하였고, 그 힘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독일 통일을 이뤄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동서독의 통일은 독일을 전범국으로 각인한 전승4국의 강압의 의한 독일의 동서독 분단과 그 일환으로 독일 수도였던 베를린 분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동서독 통일이 베를린 장벽 붕괴의 원인과 결과가 가져온 만큼, 베를린 장벽의 건설과 붕괴를 인과관계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분단 독일과 베를린 분열이 전승4국의 편리에 따라 계획적이고 강압적으로 나타난 영토 획정일 뿐이었지만, 독일 통일의 본질은 독일 국민과 동서독 주민들의 의사 집약인 베를린 장벽 붕괴로부터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승4국에 따라 독일이 분단되고 수도 베를린마저 분할시킨 외세의 의도는 독일의 2차 대전 이후 재무장 방지용이었으나, 불행한 것은 독일 국민, 동서독 주민들의 희생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 Ⅲ.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의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 분할

#### 1. 전전회담과 동서독 분단

전전(戰前)인 1943년 12월 1일 테헤란회담에서 3국(미국·영국·소련) 정상은 독일을 분할하여 공동관리 방안을 논의하였고, 1945년 2월 4일~11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 종반에 개최된 얄타회담에서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국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독일을 패전 후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던 차에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은 연합군의 점령으로 무조건 항복하였고, 5월 9일 독일은 소련군에 항복하여 동부 전선의 모든 영토를 빼앗겼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승전4국은 6월 5일 베를린 공동선언을 통하여 점령국 관리위원회를 설치, 독일의 최고통수권을 인수하였다. 종전(終戰) 후 미국·영국·소련의



3국 정상 간 1945년 7월 26일에 열린 포츠담회담에서 논의된 연합국 중심의 승전4국에 따라,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었고, 독일 수도였던 베를린조차도 동서 베를린으로 분할되었다.

주지하듯이 승전4국은 포츠담조약에 따라 승전4국이 독일을 4개로 분할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4개 점령지역에서 각각 상이한 점령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독일의 분단은 더욱 굳어졌다. 베를린 지구는 공동관리 하에 둔다는 4개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포츠담회담에 의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군대가 베를린 서부지구를 장악하고 소련군이 베를린 동부지구를 장악하였다. 서독은 미국·영국·프랑스 관할 지역을 합쳐서 동독과 분리되었다. 베를린은 본래 전부가 소련 점령 지역인 동독에 있었으나 독일의 전통적 수도(首都)라는 상징성 때문에 미국·영국·프랑스 3개국이 압력을 넣어서 분할한 결과, 서독으로서는 서베를린이 월경지가 되었다. 게다가 동독 내에 속한 서베를린은 동독과 동베를린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의 노골적인 팽창정책은 서방 점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결속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결국 서방 점령지대의 통합을 가져왔다. 이것이 독일 분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결국 분단 독일은 민주주의 체제의 서독과 공산주의 체제의 동독으로 갈라지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달리하였기 때문에 대립이 격화하였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하자 마샬플랜에 의한 경제원조를 단행하며, 1947년 소련의 독일과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가하였다. 1948년 2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방측 3개국은 소련의 참여 없이 런던회담<sup>3)</sup>을 개최, 독일정책에 대한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는 공동방침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서 연합국이 새로운 화폐인 독일 마르크 DM를 3개의 서부지역에 통용키로 합의하

3) 1948년 2/3월(1차 회담)과 1948년 4월20-6월 2일(2차 회담)로 나뉘어 개최된 런던에서의 6개국(미·영·프·베네룩스 3국; 소련은 불참)회담 결과로 런던의정서가 발표되었다. 이 런던선언에 따라 서독에서 연방정부의 수립이 추천되고, 독일인인 마샬플랜과 루르문제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부흥계획에 장래 서독정부의 참여를 전제로 하되 프랑스도 기존의 독일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정책을 강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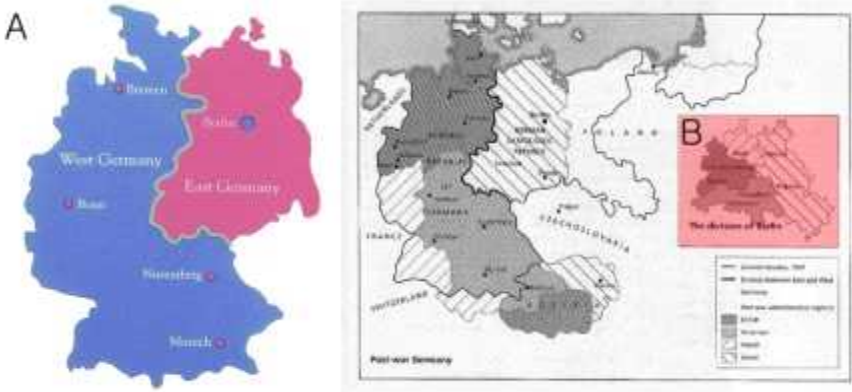
는 1948년 6월 통화개혁에 대한 소련의 저항은 베를린 봉쇄(Berlin Blockade)<sup>4)</sup>로 나타났고 결정적으로 독일이 분단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소련의 봉쇄 전략은 1948년 3월 20일 1차 런던회담에 대한 보복조치였으며, 결과적으로 3월 30일 점령국 관리위원회로부터 탈퇴하고 베를린의 기존 수송 및 교통통로를 모두 폐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6일에는 베를린에 있는 통합사령부가 해체되었고, 사실상 전승4국의 점령테제는 끝나고 미·소간 냉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48년 7월 1일 군정 당국자들은 서방 점령지대의 독일 각 주정부 수상들에게 프랑크푸르트 문서를 각각 전달하였고, 이 문서에 근거하여 1949년 5월 8일 독일 연방공화국(BRD)의 기본법(헌법)을 제정하여 5월 23일 선포하고, 9월 7일에 임시수도를 본(Bonn)으로 정한 서독정부가 탄생하였다. 소련이 점령하던 동부지역에서는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DDR) 헌법을 제정하여 동베를린을 수도로 하는 동독정부를 수립하였다. 서방측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은 케난(G.F. Kennan)의 소련 봉쇄론과 더불어 군사동맹의 결성으로 나타나, 1949년 4월 4일에는 유럽의 방위를 목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되었다. 이에 맞서 소련과 동독을 포함한 동구 여러 나라들은 1955년 5월 14일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1955년 소련은 동독이 완전한 독립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했으며, 동독은 WTO의 일원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국가가 되었다.

---

4) 1948년 6월 24일~1949년 5월 12일 기간에 소련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악했던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봉쇄정책이다. 미국은 소련이 베를린 봉쇄로 강행되자 서베를린 사람들의 생활고를 위해서 비행기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였다.

<그림1> 동서독 분단(A)과 동서 베를린 분단(B)



출처: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zq> (검색일: 2020/03/25).

## 2. 동서 베를린의 분할과 베를린 장벽의 건설

1949년 독일은 서독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에는 ‘독일민주공화국’이 각각 분단되면서 전승4국에 의해 분단이 고착화됐다. 아울러 동서독 분단과 더불어, 독일의 전전(戰前) 수도인 베를린도 전승4국에 의해서 4등분됐다. 서베를린을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승3국이 점령하고, 동베를린을 소련1국이 점령하였다. 1961년에는 ‘분단 독일’의 상징인 동서 베를린 분단선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 이후 국제적인 냉전체제 속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이던 동·서독은 동서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이주와 관광의 어려움이 동독 당국의 갈등을 부추겼다.

### 1) 동서 베를린 분할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당시 독일은 연합군에 패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전(戰前) 수도였던 베를린의 모습들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독일 본토의 전승4국에 의한 분단과 별도로, 베를린시 자체가 과거 독일 수도(首都)라는 상징성에 따라 전승4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전승4국이 베를린을 차지하였지만, 베를린의 분할은 소련 점령지구인 동베를린이 동독에, 나머지 3국 점령지구인 서베를린이 서독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베를린이 명목상 수도이고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독의 대안 수도는 사실상 본(Bonn)이었다.

동베를린(Ost-Berlin)은 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의 동쪽 지역이며, 서베를린(West-Berlin)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영국·프랑스가 점령하였던 베를린의 서쪽 지역을 의미한다. 특히 동베를린은 1949년 독일의 분할과 함께 베를린의 '소련군 점령 지구'(동베를린)가 '연합군 점령 지구'(서베를린)에서 분리되어 생겨났다. 동베를린은 동독 영토와 이격(離隔)되지 않고 동독의 수도가 되었지만, 서베를린은 서독의 본토와 이격(離隔)되어서 정상적인 수도의 구실을 하기가 꽤 어려웠다.<sup>5)</sup> 1989년 당시 동베를린이 면적은 409km<sup>2</sup>, 인구는 127만 9,212명이었던 반면, 서베를린은 면적 479.9km<sup>2</sup>, 인구는 2,130,525명이었다.<sup>6)</sup>

냉전시기 동서 베를린은 각기 미국과 소련의 원조로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양 체제와 이념으로 각각 영토가 분열되었다. 서베를린은 옛 소련군의 점령지역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 영토에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섬'이었고, 동독에 완전히 둘러싸인 월경지가 되었다. 더욱이 동독은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의 독일 동부지역 위치했던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다.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베를린의 지리적 위치는 독일의 중앙이 아닌 동부 지역에 치우쳤으므로, 동서 양 진영의 분할 점령 이후 수도 베를린 또한 동서로 나뉘게 되었다. 1948년 독일의 전후 처리 등을 두고 소련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소련은 서베를린까지 완전히 점령할 요량으로 서베를린을 소련제 탱크로 완전히 둘러싼 채 베를린 봉쇄를 감행했다. 그러나 소련의 베를린 봉쇄전략은 서베를린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국의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베를린 공수작전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고 서베를린은 계속 서방 자유주의 세

5) [blog.naver.com/nadri97/221266456344](http://blog.naver.com/nadri97/221266456344) (검색일: 2020/06/24).

6) <https://blog.naver.com/poohsi/222108155497> (검색일: 2020/09/13).

계의 도시로 남게 되었다.

1972년 6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국이 동·서 베를린의 교류에 관하여 맺은 베를린 협정에 따라, 소련은 서베를린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협정이 1990년 9월 12일까지 존재했다. 반면 동서독 통일로 동독은 1949년 10월 7일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 존속했다. 서베를린은 미국·영국·프랑스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서독에서 시행되고 있던 징병제가 적용되지 않았다.<sup>7)</sup> 서베를린이 인구를 감소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자, 징병을 싫어한 서독의 젊은이 가운데는 서베를린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림2> 동서독 분단과 동서 베를린 분단(원안)



출처: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zq> (검색일: 2020/03/15).

동베를린의 경우 명목상 소련군 관할 지역이었기에 '주'가 아닌 '특수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서베를린의 경우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9월 12일에 서베를린에 대한 연합국 점령이 해제되고,

7) [blog.naver.com/nadri97/221266456344](http://blog.naver.com/nadri97/221266456344) (2020/08/13).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후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의 재통일이 실현되면서 동베를린은 서베를린과 합쳐져 베를린주가 됐고, 서베를린의 구분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동독 지역의 신연방 주들인 브란덴부르크·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메클렌부르크포오포메른 5개주는 동독 시절 거의 4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면서 개별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독일)과의 통합을 선택했다(중앙선데이 2020/12/05).

## 2) 동서 베를린 장벽 건설

독일의 승전4국에 패망과 동서독 분단으로 결과지어진 2차 대전 종결 이후 국제사회는 동·서 대립과 화해할 수 없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가 각자의 세력과 영향력을 추구하며 전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 대립 과정이었다. 그리고 전승4국 중 미국·영국·프랑스가 각각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체제구축에 나서는 과정에서, 소련은 군대가 점령한 영토 위에 소비에트 방식의 동독 공산주의 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미·소 중심 냉전 속에 주요 대결 장소 중의 하나는 분단된 독일, 바로 '분단 독일'(divided Germany)과 같이 태동한 '분단 베를린'(divided Berlin)이 분단 독일을 통일로 풀어나가는 핵심사안의 요새지가 되었다.

첫째, 동독의 경우 동독시민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숫자의 동독 시민들이 동독을 벗어나 서독으로 탈출하자 동서 베를린을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1950~60년대 서독이 아데나워(K. Adenauer) 정부의 경제 정책과 미국의 마셜 플랜을 통한 원조에 힘입은 서독 국민들의 전후 복구 노력이 이룬 경제 부흥의 결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자, 이의 영향을 받은 동독은 서독과 달리 1953년 6월 17일, 모든 생산량을 10%로 늘리라는 당국의 명령에 항의해 동베를린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일으켰다. 소련군은 보병과 포병을 이끌고 시위를 무력진압 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둘째,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장벽 설치 때까지 동독인 400만 명이

베를린 경유 서독행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매년 0.7~3만 명이 서독행하여 장벽 무너질 때까지 총 50만 명이 동독을 탈출하였다.<sup>8)</sup> 이로 인해 동독의 경제건설이 곤란을 받게 되자 동독 정부는 국경을 철조망, 포탑 등으로 장벽을 세워 폐쇄하고자 했다. 그것은 국내를 향한, 자국민의 탈출을 방해하기 위한, 다시 말해 체제의 반대를 막기 위한 장벽이었다. 그리고 동독 비밀경찰이었던 슈타지(Stasi, 국가보안부)는 시민들 사이에 첩보원을 심어 동독 탈출 계획 등을 밀고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셋째, 서방과 동구권의 경제적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동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탈주자가 늘어나자 동독 정부는 1961년 야밤에 기습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동베를린 시민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서 동독 정부는 1961년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웠는데, 베를린은 동·서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냉전의 상징물이 되었다. 아니, 동서베를린을 가른 ‘베를린 장벽’(Berlin Wall)은 냉전의 상징이 되었다. 브란트는 바로 이 때 서베를린 시장이었다.

넷째, 1961년 8월 13일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은 독일과 유럽, 나아가 이 세계의 정치적 분단을 공고히 만드는 상징이었다. 애초의 가시철조망 울타리는 체계적으로 콘크리트 장벽으로 변모하였고, 그 장벽은 다시 폭 15m에서 150m 이상에 이르는 ‘죽음의 띠(death strip)’로 둘러싸였다. 감시탑·전기신호 울타리·쇠사슬에 묶인 경비견, 차량의 진입을 가로막는 도랑, 사살하라는 ‘명령’(SchieSSbefehl)을 받은 무장 경비병들이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섯째, 베를린 장벽은 동독의 정치선전과는 달리 외부의 적에게 대항하기 위한 방어개념의 장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내를 향한, 자국민

8) 다른 자료에 의하면, 동독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1950년부터(1950년대 초에는 상당수가 미등록자여서 제외)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이탈 동독인의 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22만 명, 총 256만 명에 달하였다. (Wendt 1991, 390).

의 탈출을 방해하기 위한, 다시 말해 공산체제를 공고화하고 이 체제의 반대를 막기 위한 장벽이었다. 베를린 장벽은 소비에트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던 많은 동유럽 국가의 정치적 억압을 보여 주는 전세계적인 상징이자 그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취약한 공산주의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

#### IV.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동독 총선, 2+4회담, 동서독 통일

동베를린이 서베를린과 바로 경계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1961년 이후로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고 서베를린과의 난공불락의 경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따라 동유럽의 자유화 및 민주적 개혁 욕구가 분출하면서 소련 지배하에 있던 동독도 28년 만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해체 수순을 밟았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어서, 최초 자유선거인 동독 총선이 1990년 3월 18일에 치러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 연방 공화국에 합병하여 통일되기에 이르렀다.

##### 1.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독 총선

###### 1)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89년 11월 9일 밤에 일어난,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그해에 유럽 곳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일어난 여러 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 및 유럽 대륙의 정치적 분단의 종식 뿐만 아니라 냉전과 서유럽 및 동유럽 진영 체제의 와해를 의미했다.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는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만큼, 동독 공산당 공보담당 샤보프스키 대변인의 말실수가 불러온 동서독 주민들이 폭발적인 국경개방 주장과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에 기인되어 독일 통일을 이뤄냈다는 데서 다른 여타의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었다.

첫째, 동서독 통일의 계기는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과 그의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 요구에 기인하였다.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혁명과 탈 공산화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근거가 되었던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포기하여 동독 주민의 무혈혁명을 가능케 했다. 1989년 6월 서독 방문시 베를린 장벽 조속한 제거 가능성 시사, 등 그의 개혁 의지와 독일 통일 관련성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9년 2월 고르바초프의 결단으로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철수<sup>9)</sup>하고 1989년 봄 공산국가였던 헝가리가 선거를 통해 비공산세력의 쉬로시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였다. 이런 일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발언은 냉전이 해체되는 서막을 알렸다. 헝가리가 1989년 5월 국경개방을 단행하자 유례없이 동독주민들 수백 명, 수천 명이 헝가리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독인들의 대거 탈출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 독일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체가 되었다.<sup>10)</sup> 이처럼 동유럽의 민주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오랜 반공투쟁을 벌이던 폴란드의 민주화가 가시화 되고, 헝가리에서 공산주의와 무관한 쉬로시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동유럽의 대변혁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단초로 이어질 수 있었다.

둘째, 동유럽의 민주화와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결과적으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시작은 1971년부터 1989년 동유럽을 강타한 민주화 바람이 그의 정권을 무너뜨릴 때까지 동독의 지도자로 군림했던 호네커(E. Honecker) 정부가 동독의 공산당 통치에 대항하며 항의들이 일어난 후인 1989년 10월 18일에 강제적으로 퇴임하고 크렌츠(E. Krenz)가 후임으로 등장하면서 비롯되었다. 수많은 항의들이 일어남에 불구하고

9) 10년간 소련군은 연 65만 병력을 투입해 전사 13000여명 부상 53000명을 기록했다.

10) [blog.naver.com/gustap83/221402745534](http://blog.naver.com/gustap83/221402745534) (검색일: 2020/04/24).

크렌츠는 10월 18일 취임과 더불어 불어 닥친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로 그의 권력도 무력화되면서 단기간 서기장으로 12월 3일 퇴진하였다. 11월 7일 크렌츠는 정치국의 3분의 2와 함께 빌리 슈토프 총리와 그의 내각의 사임을 인정하였다. 동독 중앙 위원회가 크렌츠를 당서기장 직위에 재선출 한 것은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인들의 형세를 막기 위하여 서부로 여행을 위한 새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재개하는 임무를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베를린 장벽 붕괴의 발단은 동독 전 국경선 개방의 수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동독 공산당의 공보담당 정치국원 샤보프스키 대변인의 착오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이뤄졌다. 이를테면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1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그날 결정된 여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동독 공산당의 공보담당 정치국원 샤보프스키의 기자회견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통일 성취의 결정타가 되었다. 11월 9일 저녁, 정치국 단원 샤보브스키(G. Schabowski)는 중앙 의원의 정식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독 내에서 국경선 개방과 관련, 기자들이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 모든 동독 국민은 베를린 장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검문소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자가 또 다시 그제 언제부터인가요라고 했을 때, 샤보브스키는 “내가 알기로는, 음, 지금..., 지금 당장입니다.”, 또 기자가 그럼 서독과 서베를린에 가는 것도 전부 자유인가요?라고 묻는데 대하여, 샤보브스키는 “그런 거 같은데요..”라고 대답하면서부터 동독 전 국경선 개방에 이르게 되었다.<sup>11)</sup> 이처럼 샤보브스키의 말실수는 “여행 제한이 완화되었다”라고 전해져야 할 발표가 “국경이 개방되었다”라고 잘못 전달되었다. 이는 이탈리아의 한 신문사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The Berlin Wall has Collapsed)라는 오보(誤報)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로이터 통신,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언론들까지 앞 다투어 이를

11) <https://hyuck99tvnews.tistory.com/26> (검색일: 2020/07/22).

보도하기 시작했다.<sup>12)</sup> 그날 밤 동독주민 수천 명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면서 “지금 당장”의 국경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많은 인파의 압박에 눌린 동독 경비대들은 국경을 열게 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직접적 도화선은 동독 당국 대변인 샬보프스키 기자회견에서의 ‘말실수’가 부른 나비효과에 있었다. 그러나 1985년부터 소련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과 1989년 동구유럽 개혁은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통일 여망을 일깨웠다. 이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조짐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세계사의 흐름은 완전히 독일 통일의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동독 정부가 국경의 개방을 인정함에 불구하고, 샬보프스키에 의한 말실수에 대한 언론들의 특보 타전(打電)이 수많은 동독인들이 서베를린으로 자발적인 탈출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갑작스럽고 극적인 베를린 장벽의 개방이 동독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통치의 정치적 붕괴로 이끄는 결정타가 되었다.

결국 서독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동독을 압박할 수단이 생겼고, 공산당 독재를 무너트리고 민주화된 폴란드, 헝가리 등이 동독의 민주화를 고무시켰다. 헝가리는 동독인의 대량탈출이 이루어진 곳이다. 서독 정부나 동독 정부나 서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다른 국가들은 독일 통일에 대해 매우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독당국 대변인 샬보프스키 기자회견에서의 말실수는 이미 통일이란 엇질러진 물이 되었고, 동독 정부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다. 서독과 동독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은 독일 통일에 대한 2+4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 2) 동독 3·18총선<sup>13)</sup>

그동안 동독은 소련 공산국가 치하의 1국1당제 원칙의 일환으로 (SED) 유일 집권당이 단일화로 결성되면서 분단 45년간 1당독재의 지

12) <https://hyuck99tvnews.tistory.com/26> (검색일: 2020/01/30).

13) 이 부분은 다음 글을 수정 가필하였다(정주신 2015, 210-211).

배체제로 군림해 왔다. SED 체제(1949-1989년)는 소련의 소비에트화 전략에 종속되면서 동서독 통일 이전까지 지난 40년 동안 울브리히트(W. Ulbricht, 1950~1971), 호네커(E. Honecker, 1971~1989) 등이 소련의 지배를 받는 1인체제의 절대권력을 누린 동독 1당독재의 패권 정당 체제를 의미한다. 울브리히트(W. Ulbricht)는 최소한 겉으로는 사회주의로 통일된 독일을 목표로 한 반면, 호네커(E. Honecker)는 분단과 두 국가의 존재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독이 패권적이며 비경쟁적인 1당 지배체제로부터 민주적인 다원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통일 독일의 온건한 다당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동독이 체제위기적 상황에서 동독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던 SED의 권력 독점 조항 삭제(황병덕 1996, 56), SED의 민주사회당(PDS)으로의 개편, 그리고 서독 주도에 의한 독일 통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SED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동독의 서독과 동일한 다원화된 민주주의로의 이양과정임과 동시에 동서독의 완전한 통일과정인 것이다. 특히 1989년 11월 9일, 호네커(E. Honecker)가 실각하고 크렌츠(E. Krenz)가 SED 서기장 및 수상에 취임한 이 과도체제 시기는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동독 정부의 서독에 대한 흡수통일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그러니까 1990년 3월 1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인 3·18총선 이전시기에 모드로우(H. Modrow) 동독 수상이 이끌었던 동독의 마지막 사회주의 정권은 인민 소유의 전 재산을 넘겨받아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 신탁관리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모드로우 수상은 동독의 요청으로 서독 콜(H. Kohl, 1982.10-1990.12) 수상과의 연속적(1989년 12월 19일과 1990년 2월 13일)인 정상회담을 갖고 동독정세 안정과 서독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필요성 및 양국 화폐경제 통합을 꾀했다(정주신 2020, 124-125). 그 과정에서 모드로우 수상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을 갈구하는 마당에, 콜의 요청을

받아들여 통일의 분수령이 될 1990년 3·18총선을 실시하였다. 동독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민주적인 3·18총선은 동독 시민의 민주화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자 동독 모드로우 정부가 민의의 저항에 굴복한 유일무이한 선거였다.

한편 3·18총선 직전인 1990년 3월 15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M. Gorbachev)는 대통령직을 신설해 소련 대통령직에 오른 후 1991년 12월 25일까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동독 3·18총선을 관망하는 등 독일 통일에 우호적인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였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등극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펼치며 소비에트 연방 탈퇴 주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완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도입, 민주화를 위한 언론 자유화 허용을 주창하면서, 동유럽의 민주화와 독일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데 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여하튼 3·18총선에서 가능한 한 신속한 통일을 목표로 삼았던 ‘독일을 위한 연합’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이정표가 마련됐다. 그 결과 동독 최초 민주적 선거인 3·18총선은 서독과의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구동독 기독교민주당의 압승으로 결과 졌다. 그 의미를 적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 정당들은 1990년 3월 18일 동독이 총선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확정하자 동독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에 편승해서 동독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동독 3·18총선이 통일 이후 정치적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 하에 서독의 ‘정당정치’가 동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미 동독의 정당체계와 내부 정치는 ‘서독화’되었다. 이때부터 맹아적 발생 단계인 동독의 정당체계는 서독 정당체계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1989년 12월 서독기민연(CDU)은 동독기민연(CDU)이 공산당으로부터 독자노선을 선언하게 되자 양 정당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여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3·18총선은 당시 선거 투쟁과정에서 통일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던 동독사민당이 패배하고, 서독기민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조속한 통일을 주장했던 ‘독일을 위한 연합’이 승리했다(P. Pulzer 1995, 161). 서독기민연의 지원을 받은 동독기민연의 ‘연합조직’(48.15% 지지율 획득)이

동독사민당(21.84%)과 SED 후신인 민사당(PDS, 16.33%)을 물리치고 동독지역 제1당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결국 3·18총선은 급속한 흡수통일을 주도한 동독기민연과 동독자민당의 승리였다. 결국 3·18총선 결과는 서독정당에 의한 동독정당의 개입과 흡수통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이미 1990년 8월에 시민운동에 기반을 둔 민주자유당(DFP)과 1990년 초 결성된 동독의 자민당, 그리고 동맹당 소속 자유민주연맹(BFD) 등이 서독의 자민당에 통합되었다. 이어 1990년 9월에 동서독사민당이 통합 당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통일이 되기 바로 직전인 10월에는 동서독 기민연이 통합되었다. 이처럼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을 이루면서 동서독 정당들 간의 통합을 위한 작업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실질적으로 서독의 정당체계가 1990년 12월 3일 통일연방선거(Bundestagswahl)를 앞두고 동독 정당체계를 흡수 통합했다.

1990년 3월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집권한 동독 드메지어 정부가 서독과의 신속한 통합을 추진한 것은 서독사회를 동경한 동독주민들의 열망 때문이었다. 동독은 1990년 3월 18일 자유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드메지어 정권을 세웠고 콜은 드메지어 정권과 통일 협상을 추진해 10월 3일 통일을 완성했다(정주신 2020, 126). 이처럼 서독 정당들의 역할은 통일방법 대안 제시와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정당을 지원해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통로를 제공하는 등 독일통일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일은 서독의 일방적인 동독 흡수통일로 동독이 소멸하고 독일연방 공화국이 옛 동독을 이루는 5개 주의 연방 가입을 받아준 것이다.

결국 독일은 1989년 기민연의 전략, 그리고 당시 정부수반이었던 콜 수상을 통한 평화로운 혁명으로 인해 1990년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기민/기사연의 콜 정부는 이전 브란트와 슈미트로 이어지는 사민당 정부의 동방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결국 통일을 실현하였다.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됐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해체에 이어서, 자유선거인 동독 총선이 1990년 3월 18일에 치러지고, 여당 독일통일사회당은 동독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3월 18일 동독선거 후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해 8월 23일, 동독 의회는 동독의 행정 구역을 전쟁 전의 5개 주로 복귀하기로 결정하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 연방 공화국에 합병하여 통일이 되었다.

이후 1989년 동베를린의 시민들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동쪽과 서쪽의 베를린 또한 분단된 지 44년 만에 재통합하게 된다. 이후 1991년에는 서독의 임시수도 본에서 환도해 통일 독일의 수도로 컴백, 20세기 이후 통일 독일의 수도로 기능해 왔다.

## 2. 2+4회담과 동서독 통일

### 1) 2+4회담<sup>14)</sup>

미·소 양대 진영이 대치하면서 대결과 긴장완화의 국면이 교차되었던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는 핵전쟁의 위협에 거듭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마침내 독일은 동·서독 중심으로 통일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자로 통일이 되려면 전승4국(미·영·불·러)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2+4회담의 개최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된 이래, 이 회담은 1990년 5월 5일에서부터 1990년 9월 1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표 1> 참조), 물론 9월 12일 모스크바 4차 회담에서 ‘동독관련 2+4회담의 최종 합의에 관한 조약’이 성사됐다(한국정치사회연구소 편 2011, 48-49). 1990년에 진행된 동독과 서독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4국의 대표로 구성된 2+4조약에 관한 협상은 독일 통

14) 이 글은 부분적으로 다음을 참고하였음. <https://unikoreablog.tistory.com/4308>  
(검색일: 2020/04/24).

일과 유럽 통합의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2+4회담을 통해, 양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 전승4국들은 독일 통일에 동의했다.

첫째, 독일 통일은 서독이 주도해서 전승4국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2+4회담이지 반대로 전승4국이 동서독을 초대하는 형식의 4+2회담을 지양하면서 이뤄냈다. 동서독의 입장에서는 전승4국에 의해 독일 분단과 베를린 분할로 나뉜 상태에서 국제적 지위는 전범국가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전승4국이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까지는 형편상 4+2구도였다. 미국은 4+2협이라든가 통일 방법을 관계국들에 제안할 만큼 서독과 소련 양국에 의한 합의 가능성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고자 했다. 이 경우는 미국이 미국과 소련을 중시한 전승4국의 구도로 동서독을 통일한다는 방식이어서 미·소간 냉전체제에서는 독일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기득권적 측면을 노정하였다. 그러나 우연하게 갑작스런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미·소간의 냉전을 불식시키며 동서독 통일의 주체가 동서독으로 기울어질 만큼 전승4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서독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 독일 통일의 내적 측면은 동서독이 주체적으로 논의할 문제이고 독일 통일의 대외적 측면은 전승4국이 편승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서독은 독일 통일의 구도 명칭은 전승4국이 주도하는 주최로서의 4+2구도가 아니고, 동서독이 주연이고 전승4국이 조연으로서 2+4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서처럼 전승4국이 강압적으로 분단 획책에 전범국으로 동서독이 부차적 존재였다면, 이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통일 독일에 이르기까지 양 독일 국가가 전승4국을 초대하는 형태로 2+4구도로 통일 문제에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주도하기를 원했다. 독일인이 독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조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국 2월 12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동서간의 신뢰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NATO와 바르샤바조약의 대부분 국가가 모인 오픈 스카이스(Open Skies) 회의에서 6개국인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으로 조직된 2+4구도로 합의되었고, 그 첫 회합은 3월 18일 동독선거 후에 개최하기로 논의했었다.



<표 1>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1990년 '2+4' 회담 일지

- ▲2월10일→ 동독에서 통일압력이 높아지자 콜 서독 수상이 모스크바를 방문, 미하일 고르바초프로부터 통일에 관한 승인 받아냄
- ▲2월13일→ 6개국 외무장관들이 오타와에서 베를린 통제 등과 같은 전승4국들의 전후 권리를 포함한 "독일 통일의 외부적인 면"에 대해 논의기로 합의
- ▲2월24-25일→ 콜 수상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부시 미(美)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독일통일을 지지했지만 전후 폴란드와의 국경선 인정을 꺼려하는 콜을 비난
- ▲3월11일→ 6개국 고위 외교관들이 본에서 만나 `2+4'회담 준비 시작
- ▲4월28일→ 콜 수상의 통일 가속화 움직임을 우려했던 유럽공동체(EC)는 더블린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담에서 통독 계획을 환영하고 동독의 EC 가입에 관한 작업을 개시
- ▲5월 5일→ 본에서 개최된 1차 외무장관회담에서 세바르드나제 소(蘇) 외무장관이 독일의 나토 가입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진 뒤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 겐서 서독 외무장관은 이 제안을 지지했지만 콜 수상은 독일은 나토에 잔류해야 한다면서 거부
- ▲5월23일→ 겐서 장관이 제네바에서 세바르드나제 장관과 회담
- ▲6월8일→ 콜 수장과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나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 돼야 한다는 서방측 요구 재확인
- ▲6월11일→ 겐서 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장관이 소련 브레스트市에서 회담, 일주일 후 서독 뮌스터에서 다시 회담
- ▲6월22일→ 서독 의회가 폴란드와의 국경선문제 종결됐다고 선언
- ▲6월22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2차 `2+4'회담에서 서방측 국가들은 독일 통일 후 5년간 독일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동시 가입시키자는 세바르드나제의 제안 거부
- ▲7월5-6일→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더 이상 적(敵)이 아니라고 선언
- ▲7월14-16일→ 콜 수상이 모스크바와 고르바초프의 고향 스타브로폴을 방문, 고르바초프로부터 통독의 나토 가입승인 받아냄. 콜은 독일군을 37만 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
- ▲7월17일→ 폴란드 외무장관도 참석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린 3차 `2+4'회담에서 독일 통일 후의 폴란드와의 국경선 인정기로 합의
- ▲8월17일→ 겐서 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장관, 모스크바서 회담
- ▲8월23일→ 겐서 장관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통독의 화생방 무기 비생산,

불소유 및 불사용 선언

- ▲8월30일→ 겐서 장관과 메지에르 동독 수상이 빈에서 열린 재래식 무기회담에서 통독은 향후 3년 내에 37만 명으로 병력을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힘
- ▲9월5-6일→ 소련과 서독,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군 비용문제 합의에 실패
- ▲9월7일→ 콜과 고르바초프, 전화 통화에서 소련군에 대한 서독의 원조계획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
- ▲9월10일→ 콜·고르바초프,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1백20억 마르크(80억 달러) 원조기로 합의
- ▲9월11일→ 겐서 장관, 모스크바에서 세바르드나제와 최종 회담
- ▲9월12일→ 베이커 미(美) 국무장관, 세바르드나제 소(蘇) 외무장관, 허드 영(英) 외무장관,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겐서 서독 외무장관 및 메지에르 동독 외무장관 대행이 모스크바에서 "2+4"협정 체결

출처: 연합뉴스 1990/09/13. \* 필자 일부 수정

둘째, 2+4회담은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서독이 통화동맹 등으로 독일 통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었을 때, 통일 이전에 독일을 둘러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독일에 대한 국제적 지위를 결정하고 통일 독일의 영토와 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서 독일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 외무장관이 모여서 2+4 외무장관회의를 열었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과 개방, 그리고 동유럽의 민주화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탈출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2+4회담으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1990년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동독과 서독의 국가원수 사이에 진행된 협상과 그 산물인 2+4조약은 외교력과 국정운영능력의 걸작이었다. 이러한 회의는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최종 합의 문서로서 2+4조약이 체결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2+4조약 덕분에 통일을 이루었다. 이로써 유럽 통합의 과정은 독일 통일과 더불어 진일보하였으며, 세계를 동쪽 진영과 서쪽 진영으로 양분한 정치적 분단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2+4조약은 독일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주권 문제, 군사적 문제, 영토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우선 독일은 2+4조약으로 인하여 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특히 독

일 이외에 조약에 참여한 4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동맹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셋째, 2+4조약은 독일의 국경을 확실히 정하여 미래 독일이 통일하였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영토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4조약은 독일은 더 이상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문제를 담았다. 독일군의 규모는 370,000명으로 제한되었고, 핵확산금지조약이 동서독 모두에 대해 적용되었다. 동독 지역과 베를린에는 외국군, 핵무기 및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가 금지되기도 하였다. 조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련군이 동독 지역의 방어를 맡았으며, 이는 1994년 소련군이 동독 지역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대신 소련군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서베를린에는 나토군이 주둔하였다. 소련군의 주둔과 철수에 관한 비용은 서독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그 결과 독일의 영토는 동독, 서독의 영토 및 베를린으로 결정되었다.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는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대외적 장애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오데르-나이세 선을 그대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으로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듯 2+4조약은 독일 통일에 대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주변국과의 분쟁을 방지하고, 독일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 동서독 통일 요인

### 가) 독일 통일의 내적 요인<sup>15)</sup>

첫째, 콜 정부와 기민/기사연이 이전 브란트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계승하기까지는 연정의 상대가 되었던 자민당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는 기민연 출신 콜 수상-자민당 출신 겐셔(H. D. Genscher) 외무장관 정부 하에서 독일통일에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 동서독 관계가 심화된 단계이다(김도태 1996, 21-22). 자민당의 선택과 역할은 결과적으로 독일통일에 필요했던 소련의 양보를 이끌어 내었으며, 나아가

15) 이 부분은 다음의 글을 부분 참조하였다(정주신 2015, 207-208).

동독의 대서독 개방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 전문가를 중용하여 전임자가 세워놓은 통일프로그램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통일을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통일원 1993, 150).

둘째, 독일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전승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전승4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통일 이전 10개월 동안 서독의 콜 수상은 4국과 수차례의 정상외교를 펼친 지대한 공헌자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콜 수상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은 동독 주민의 절망과 분노를 통일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 전승4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콜 정부에게 유럽통합을 위한 가교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만큼, 분단 극복의 개념을 서유럽 통합과정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1986년의 베를린 장벽 모습, 1990년 5월 18일 양독의 경제·통화·사회적 통합 협상, 7월 1일 경제통일 실시로 서독의 독일 마르크로 화폐 통일, 8월 23일 동독 의회의 향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흡수통일(동독 메지에르 수상 제안) 동의, 8월 31일 양쪽 독일 대표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조인, 9월 12일 독일 주변국가와 함께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협상) 조인 등이 동서독 통합과정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2+4협상 타결의 최종 장애를 제거하여 동서독 간 통일조약과 2+4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다.

셋째, 동서독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동서독 간 일체감을 유지하고 서독의 동독에 대한 상호주의 거래<sup>16)</sup>에 따른 포용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3년 동독의 서방은행에서 10억 마르크 빌리는데 서독 정부 보증에 대한 대응으로 동독이 국경에 설치된 탈출자 사살용 자동기관총 5만4천개 철거, 1984년 동독이 서방 은행에서 9억5천만 마르크 빌리는데 서독 정부 보증 이면에는 동독이 동서독

1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00925/31384478/1>  
(검색일: 2020/09/23).

여행자 자유 왕래 확대와 여행 시 물자교환 확대 조치(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합법적 이주, 양독 주민의 상호 방문 절차 완화), 1986년 서독이 동독의 무역결제 자금 대부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독이 서독과 문화협정 체결과 동서독 자매도시 간 결연, 1987년 서독이 동독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의 서독 방문 허용에 따른 조치로 동독이 동독 주민의 서독 여행 확대 및 우편 및 전화 증설과 서독 기자의 동독 취재 확대 등으로 상호간 신뢰감을 갖게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소련 고르바초프(M. Gorbachev)의 개혁정치 표방은 신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적 긴장완화를 계기로 동서독 관계에 긴장완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기민/기사연/자민당 2기 체제는 1985년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치로 인한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독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콜 총리는 소련을 방문해 고르바초프와의 협상을 통해 독일의 군사력 제한, 소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소련의 여러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용했다.

다섯째, 1989년 11월 28일 콜은 서독 연방의회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독일의 통일을 동독과의 정치적 협상의 목표로 정식화했다. 동독의 자유선거, SED의 지도력 포기 및 정치적 석방, 계획경제의 폐기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 ‘10개항 계획’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통일과정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기민/기사연/자민당 2기 체제는 독일통일과정에서 당 내부적 혼란을 자초하는 등 정당이 통일을 주도하기보다는 콜 정부의 통일정책을 협조하는 선에서 존재하는 한계를 지냈다.

여섯째, 동구권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공격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한 콜 서독정부와 기민/기사연/자민당은 동독을 서독으로 편입시키는 제23조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주장하였고, 반면 사민당은 즉각적인 통일 반대의 입장으로 동서독간의 협상에 따라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헌법을 세우는 제146조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결국 서독 정부는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을 서독(독일연방공화국)으로 편입시키는 흡수통일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나) 독일 통일의 외적 요인<sup>17)</sup>

첫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사건은 독일인에게는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독은 전후 수십 년간 나토와 유럽공동체에 대해 나름 헌신해 왔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서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유럽의 태도는 각종 핑계를 대며 독일 통일을 가로막았다. 다만 유일하게 미국만은 1989년 봄 동독의 사태를 주시하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독일의 편에 섰다.<sup>18)</sup> 미국으로서는 독·소 관계<sup>19)</sup>를 강화되는 한편,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만 없다면 통일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독일 통일에 대한 지지는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크게 공헌한 바였고, 이에 콜 수상은 1990년 5월에 전승4국과 동서독이 2+4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화답으로서 부시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둘째,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힘의 우위정책에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다. 1989년 부시 대통령은 독일통일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콜 수상이 그해 9월 공개적으로 통일을 거론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공산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힘의 우위”가 뒷받침되어야 협상문제해결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레이건 정부가 전략방위구상을 통해 소련을 압박한 것이 주효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서독 콜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일조했다. 또한 서독도 확고한

17)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77XX71300156> (검색일: 2020/08/24).

18) 박상봉, “독일 통일과 유럽국가” <http://blog.daum.net/germanunification/9085304> (검색일: 2020/04/20).

19)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blog.daum.net/germanunification/14979114> (검색일: 2020/05/18).

친서방노선을 통해 힘의 우위에 견지한 것이 소련과 동독과의 교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서독 정부는 통일의 내면적 측면을 처리한 후 통일의 대외적 측면 문제에 대응은 소련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였다. 1990년 2월 콜 수상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회담했을 때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독일의 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제일 큰 문제는 통일독일과 NATO와의 관계 설정이었다. 서독과 서방측이 통일독일은 NATO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데 반해, 소련은 통일 독일의 NATO 참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통일의 대외적 측면의 최대 난관이었다. 5월 5일 본에서 개최된 1차 2+4협약에서도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독일의 NATO 가맹이 통일이 이루어진 뒤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 겐셔 서독 외무장관은 이 제안을 지지했지만 콜 수상은 독일은 나토에 잔류해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즉 통일독일에 대한 전승4국의 권리와 책임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NATO에 이양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넷째, 통일 독일의 NATO 가입 문제 등 심각한 대립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련의 경제적 곤란을 상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협약의 전 날인 1990년 5월 4일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콜 수상과 회담하여 독일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회담 최후에 고르바초프의 지시라면서 소련 정부의 서방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서독의 정부 보증을 할 수 있겠는가를 타진했다. 콜 수상은 독일은행과 드레스덴 은행과 협의하고, 수상청(首相廳)의 대외정책국장 탈칙과 양 은행의 관계자들을 극비리에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그들은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루이센코 수상을 만나 200억 DM의 차관에 대한 소련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섯째, 독일의 NATO 가맹과 관련한 최종 교섭의 타결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7월 14일~16일 간 콜 수상의 모스크바와 고르바초프의 고향 스타브로폴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콜은 고르바초프로부터 통독의 나토 가입승인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독일군을 37만 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통

일독일의 NATO 참가를 인정했고, 이로써 독일 통일의 대외적 가장 큰 현안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안 문제인 동부 국경 문제는 폴란드 외무장관도 참석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린 3차 2+4회담에서 독일 통일 후의 폴란드와의 국경선 인정기로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소련의 급박한 경제 문제에 대한 서독의 원조는 9월 10일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서기장 사이에 전화회담을 통해 독일이 120억 DM의 지원과 30억 DM의 무이자 차관의 공여하기로 함으로써 드디어 타개되었다.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의 4차 2+4협약에서 2+4조약이 서명되어 독일 통일의 대외적 측면에 대한 합의가 달성되었다.

## V. 결론

1989년 11월 9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배경은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및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 선언에 있다. 그 경과는 동독 주민의 서독 탈출, 민주화 요구 시위였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그동안 닫혀있던 브란덴부르크 문이 다시 개방되었고,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졌다.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 등, 격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통일을 이뤄냈다. 동독 SED는 동독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상실하였다. 그해 8월 23일, 동독 의회는 동독의 행정구역을 전쟁 전의 5개주로 복귀하기로 결정하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공화국에 합병하여 통일이 되었다.

이 글에서 다뤘던 논의의 전제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고 그 전범국을 갈라놓기 위한 승전4국의 조치가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한 것이었고, 또다시 베를린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분할한 것이 요체였다. 독일을 미·영·불 중심의 서독과 소련 중심의 동독으로의 분단과 동독내의 베를린을 과거 독일의 수도(首都)였다는 이유만으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의 분할은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이 분단 동서독과 분할된 동서베를린을 단일 독일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었다. 중



요한 것은 독일 통일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독일 국내외적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동독에서 1990년 3·18총선이 통독 과정으로의 이행과 5월 5일부터 시작된 소련이 2+4회담 과정에서 통일 독일의 NATO 가입 문제 등 심각한 대립이 있었지만, 운 좋게도 소련 정부의 서방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서독의 정부 보증으로 해결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된 핵심적 요체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동서독이 통일을 이뤄냈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동서독과 동서 베를린이 각각 분단된 현실에서 동독과 서독이 정통성을 내세워 분단을 강요하고 서독은 동독에게 동독은 서독에게 자신들의 방식에 의한 통합에 대해 우위를 강조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동서독 분단은 체제와 이념을 강조해 팽팽한 대립을 가져왔다. 체제와 이념에 따라 동서독은 공고화되었지만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강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동서독 정상회담을 수차례 가져왔지만 베를린 장벽이 붕괴 전에는 팽팽한 대립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는 일상천리로 정상회담이 진척된 것만 보아도 베를린 장벽이 동서독 통일에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서독 주민들, 특히 동독주민들의 통일여망은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데 제일 큰 공헌을 한 셈이었다.

결국 전승4국에 의한 위로부터의 분단 과정이 전범국 독일 영토와 그 수도(베를린) 관할지를 각각 분할시키는 것이었지만, 독일 분단 45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뤄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독일 분단과 베를린 분단은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베를린과 그 장벽 붕괴는 통일독일을 위한 주사위로서 이미 던져져 있었다. 그 중심에 독일 국민과 베를린 주민이 있었고, 독일 통일을 위해서 2+4회담의 판을 키워낼 수 있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분단 독일과 분할 베를린 영토에 펼쳐진 장막과 철조망을 뚫고 하나된 독일을 발원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즉 독일 통일은 민족적으로 밑으로부터의 통일 과정이 뭉쳐서 정상적인 통일 독일과 독일인으로 합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02. “독일 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0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면희. 2009. “독일의 정당 분화 연구: 신자유주의와 정치지형의 변화.” 『동북아연구』 제19집.
- 김면희. 2010. “통일 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2호.
- 김도태. 1996.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박상봉. “독일 통일과 유럽국가.” <http://blog.daum.net/germanunification/9085304> (검색일: 2020/04/20).
- 서병철 편. 2003. 『분단극복을 위한 초석: 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 서울: 매봉.
- 서준원. 1998. “독일 통일정책에 대한 재조명: 콘라드 아데나워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8집 1호.
- 서지원 역. 2004. 『도이치 현대사2: 변화와 모색』. 서울: 비봉출판사.
- 유진숙. 2008. “독일의 수상리더십과 정당: 제도와 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8권 2호.
- 유진숙. 2011. “독일 통일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 수상리더십과 정당정치적 요인.” 『한국정치학회보』제45집 제4호.
- 정병기. 2011. “통일 독일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연방주별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다양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4호.
- 정용길. 2009.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서울: 동국대 출판부.
- 정주신. 2015. “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성격 분석: 동서독 지배정당을 중심으로, 1945-1990.” 『한국동북아논총』 제20집 제2호.
- 정주신. 2020. “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비교연구: 동서독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4호.
- 통일원. 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 황병덕. 1996. 「동서독간의 정치 통합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편. 2011.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 과제』.  
대전: 프리마북스.

중앙선데이 2020/12/5; 연합뉴스 1990/09/13.

Pulzer Peter. 1995. *Germ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 Press.

Wendt. 1991.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Bilanz einer  
40jährig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Deutschland  
Archiv*. Vol. 2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00925/31384478/1> (검색일: 2020/09/23).

<https://heritage.unesco.or.kr> (검색일: 2020/07/22).

[https://namu.wiki/w/상관관계와\\_인과관계](https://namu.wiki/w/상관관계와_인과관계) (검색일: 2020/01/23).

<https://blog.naver.com/poohsi/222108155497> (검색일: 2020/09/13).

<https://hyuck99tvnews.tistory.com/26> (검색일: 2020/01/30; 2020/07/22).

[blog.naver.com/nadri97/221266456344](http://blog.naver.com/nadri97/221266456344) (검색일: 2020/06/24).

<https://unikoreablog.tistory.com/4308> (검색일: 2020/04/24).

[blog.naver.com/nadri97/221266456344](http://blog.naver.com/nadri97/221266456344) (검색일: 2020/08/13).

<http://blog.daum.net/germanunification/14979114> (검색일: 2020/05/18).

[blog.naver.com/gustap83/221402745534](http://blog.naver.com/gustap83/221402745534) (검색일: 2020/04/24).

<https://search.daum.net/search?w=img&nzq> (검색일: 2020/03/15).

<http://blog.daum.net/germanunification/9085304> (검색일: 2020/04/20).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77XX71300156> (검색일: 2020/08/24).

투고일 : 2020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20년 11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5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로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10월 부마항쟁: 유신체제의 붕괴』, 『한국의 정당정치: 군부체제 집권당』, 『4·15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 등이 있다. 그 외 논문으로는 한국과 동서독 통일문제, 한국과 영국의 장강정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and German Unification

Chung, Joo-Shin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influenced the end of the East-West Berlin division in German reunification, especially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A key factor to be discussed here is the fact that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has sparked German reunification. This process was followed by 'Division of East and West Germany→ Division of East Berlin→ Construction of the Berlin Wall→ Collapse of the Berlin Wall→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nyway, before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East and West Germany brought several summits, but before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only sharp confrontation was prevalent. However, just by looking at the progress of the summit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us, the unification prospect of East and West Germans, especially East Germans, contributed the most to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Eventually,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served as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a united Germany through the tents and barbed-wire fences spread out over the territory in divided Germany and divided Berlin. In other words, German reunification was possible by the national re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which united as a normal unification German and German.

**Keywords** : Four victors, division of Germany, division of Berlin, collapse of the Berlin Wall, reunification of Germany